

민주 ‘텃밭 탈환’ 절치부심...국민의당 녹색돌풍 재현 집권 넘보

4·13총선 1년...광주·전남 대선국면 정치지형 변화 촉각

지난해 4·13 총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5·9 참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년 전인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해 기존 텃밭 민심을 회복해 집권 정당으로 우뚝 설지 여부와 당시 '녹색돌풍'을 일으키며 호남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이 창당 1년 만에 집권당이 될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 민심 회복하나=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4·13 총선에서 광주에서 전멸하고, 전남 1석, 전북 2석에 그치는 등 말 그대로 국민의당에 참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참패에도 당의 뿌리자, 텃밭인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호남민심을 향해 간절한 구애를 해왔다. 광주와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이개호 의원 1명뿐인 만큼 당내에 호남발전 특위를 구성해 여론 수렴과 민심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예결위원장들이 직접 광주시, 전남도와 당정예산협의회를 열어 지역 예산 챙기기에도 노력하면서 호남 민심을 다시 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년이 지난 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전통적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 민심 되찾기에 '올인' 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호남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호남 민심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반문(反文) 정서'가 상당 부분 희석됐고, 119석을 가진 수권 정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호남민심에 대한 구애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이형석 최고위원(광주시당 위원장)은

민주, 참패 아픔 딛고 1년간 민심 회복 노력 국민의당, 호남 지지 힘입어 원내 제3당 발돋움

“그동안 낮은 자세로 지역민에 호소해 왔고, 민주당의 근간이 호남과 민주개혁세력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집권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녹색 바람’ 이어갈까=지난해 4·13 총선 결과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녹색 태풍’을 앞세워 정당 2개월여 만에 압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당은 광주 8석을 석권한 것은 물론 전남에서 8석, 전북에서 7석 등 호남에서 총 23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서도 민주당에 앞선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다.

국민의당 압승 배경에는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을 재편해 정권 창출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이 최대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당은 4·13 총선 뒤 호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또 한번의 ‘녹색 돌풍’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 경선에서 보여줬던 호남 민심을 타고 불어닥친 안풍(安風)에 고무돼 있다. 40석의 정당이지만, 창당 1년 3개월 만에 집권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1년 전 ‘녹색돌풍’을 다시 일으키며 대선에서 또 한번 이변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8명과 공동선대위원장 28명 등을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



전북의 전직 지방의원 104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200여명씩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광주, 이해찬 등 중량급 투입 전남, 이개호·김영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3일 각각 중량급 인사 등이 포함된 200여명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또한, 더민주 중앙선대위의 전철철 의원(조직특보단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여명이 이날 광주를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을 돌며 지역 민심 접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의회에

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8명과 공동선대위원장 28명 등을 발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해찬 의원, 김부겸 의원, 박경린 전 YWCA 사무총장,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정희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양항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선임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최진·이병훈·이용빈·박인화 등 각 지역위원장과 이기표 전 광주방송 본부장, 김영남 시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 실무를 맡을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은 이병훈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맡

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는 시·구위원을 배치했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반재신·조오섭 시의원, 박시종 포럼 광주 사무총장 등이 선임됐다.

문상필·주경남·조세철·전진속 시의원이 유세본부장을 맡았으며, 대화협력본부장에는 김용집 시의원이 임명됐다. 조직본부장은 오광교·김상훈·강원호 구의원이 맡아 역할을 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조병남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시당 선대위 공보대변인은 김보현·김동찬 시의원, 이재종 당 국민통합위원이 맡았다.

전남도당도 이날 10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위 인선안을 확정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개호 도당 위원장

과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전 의원이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서갑일 전 의원과 신정훈(나주·화순), 신문식(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김재무(광양·곡성·구례), 송대수(여수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성서석 전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김종철 전 도의회 의장, 정찬수 열린교회 목사 등 모두 19명이 공동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 선대위는 오는 15일 광주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에서 함께 출범행사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5·18 민주광장에서 대대적인 출범식과 함께 본격 유세전에 돌입한다. /최권일기자 cki@

4·12 재보선, 국민의당 호남 5곳 중 3곳 승리...민주당 영남권 선전

국민의당 영남·충청 지역에 호남의원 배치

국민의당은 13일 지역구 의원이 없는 영남권과 충청권 등 취약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치해 현지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대선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3명의 호남지역 의원 중 상당수를 자신의 지역구와 함께 취약지역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연구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최근 소속 의원들과 조율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으며 원내 지도부는 전날 출범한 국민선대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수도권은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 이 총괄하면서 박선숙·장정숙·이동섭·김경진 의원이 서울지역에 투입된다. 경기권은 지역구가 수원갑인 이찬열 의

원을 필두로 운영일·박주현 의원이 배치되고, 인천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지원 자격에 나선다.

충청권에선 김동철·황주홍·김관영·신용환·오세정·김수민 의원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출신인 이상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식·이인주·손근주·이태규·이용주 의원이 지원한다. 대구·경북은 김중로·조배숙·박준영·이용호 의원 등이 배치된다.

또한 광주는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시당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이, 전북은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과 김광수 의원, 전남은 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인화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제주는 송기석 의원이 지원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전남도의원 박성재 여수시의원 이정만 순천시의원 강형구 당선

4·12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PK)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 선전한 반면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 전조전'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두 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이후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은 5곳 중 3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과 무소속은 각각 1곳에서 당선됐다.

전남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을 뽑는 4·12 전남지역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은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1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켰다.

전남도의원을 뽑는 해남 2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박성재 후보가 57.62%로, 민주당 양재승 후보(42.37%)를 제쳤다. 여수시의원을 선출하는 여수나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이정만 후보가 34.31%를 득표하며 민주당의 김승호 후보(28.17%)를 눌렀다.

순천시의원을 뽑는 순천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강형구 후보가 31.39%로, 국민의당 김호준 후보(26.99%)를 이겼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당은 현역 국회



박성재



이정만



강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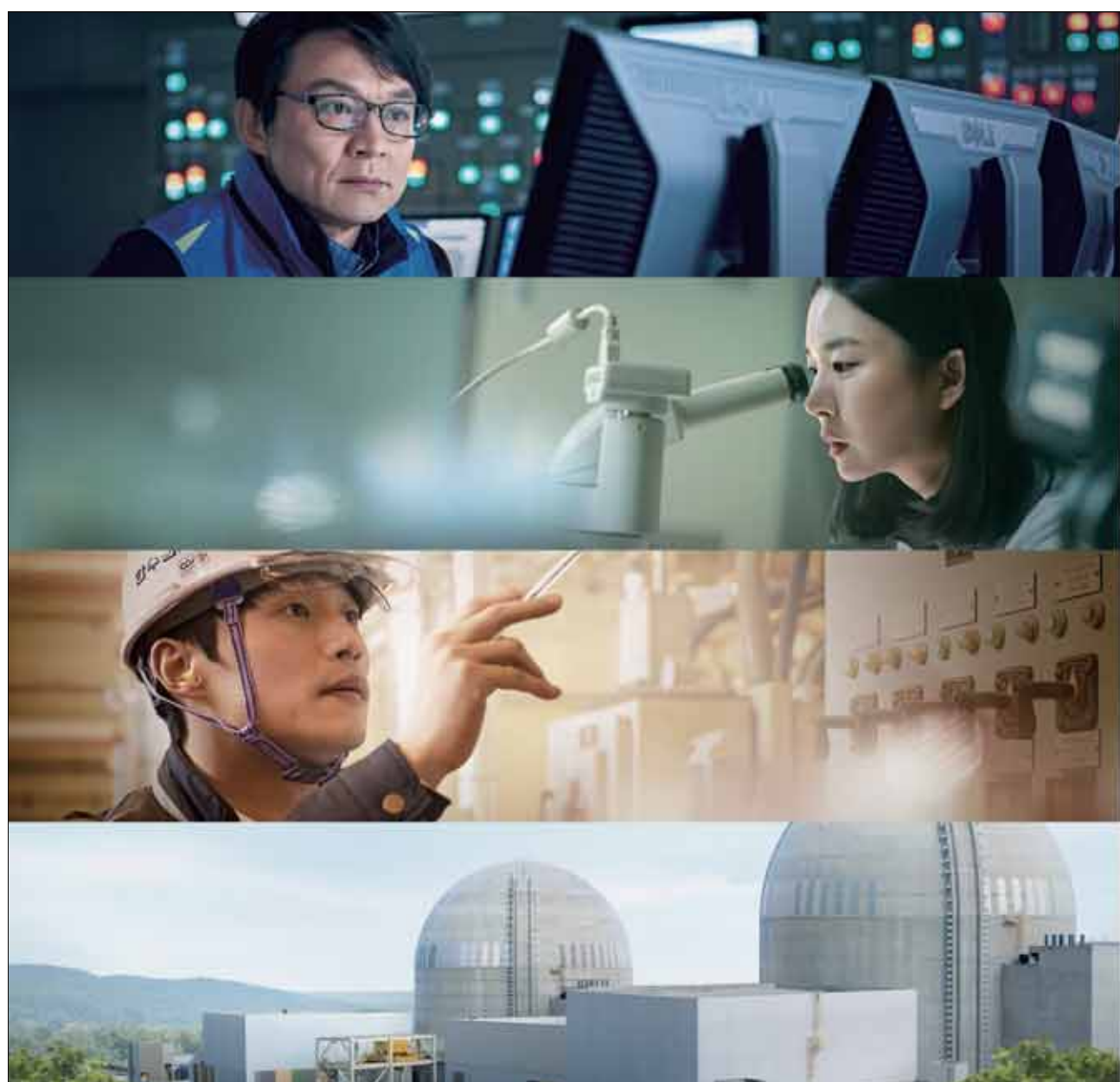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모두 승리한 반면 지역구 의원이 없는 순천에서는 민주당에게 시의원 1석을 내줬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전북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가 당선됐다. 완주군 라선거구(고산·화산·경천·동상 등)에서 치러진 군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임귀현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호남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민주당은 하남시장 선거에서 오수봉 후보를

당선시키는 등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부산·경남(PK) 지역에서 11곳의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5곳을 가져왔다는 점 등에서 고무된 모습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밀렸다는 점에서, 반대로 국민의당은 호남 외의 지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TK지역에서 경북 상주시·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비롯해 광역의원 1석, 기초의원 4석을 싸늘이 하고, 경기도 포천시장 선거, 경기도의원 2곳, 부산·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3곳 등에서 승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놓고 '보수 결집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